



## 종교개혁과 문자, 그리고 시대적 선도

종교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이었다. 그때까지 교회는 라틴어로 된 성경인 불가타(Vulgata)만을 인정하고 있었다. 즉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은 했지만, 그것을 다시 모국어로 번역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당시 라틴어는 상류층만 쓰던 언어이다. 원래 이 언어를 쓰던 이들은 사라지고 교회와 상류층에 문자만 남아 있었다. 즉 이것은 외국어로서, 더군다나 죽은 언어로서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죽은 언어로 신앙을 유지했다. 성경도 라틴어이고, 예배의 모든 순서도 라틴어였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예배 가운데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찬송도, 기도도, 말씀도 모두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하지도, 함께하지도 못했다.

교회는 왜 이 언어를 고집했는가?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어 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즉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자격이 안된다고 본 것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천민들이 함부로 읽도록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또한 예배 가운데서도 동일한 게 나타났다. 언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찬식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삼과 피로 변화한다고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그들에게서 구원이 필수적인 요소였고, 또한 가장 중요한 예배순서였다. 하지만 동일한 생각에서 빵은 나누어도 포도주는 성도들과 나누지 않았다. 즉 일반 성도들은 말씀을 읽을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아니 나아가서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종교개혁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벽을 깨는 일부터 시작했다. 종교개혁은 항상 말씀을 번역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 그러나 그것은 목숨을 거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다. 당시 기독교들은 성경이 번역되는 일에 대해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들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루터가 바르트부르크에서 신약성경을 번역한 일은 대표적인 예이다. 작센 주의 현재 프리드리히는 루터를 납치하는 형식으로 데려와 수도원의 골방에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도왔다. 영국에서도 틴데일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 그러나 그는 영국에서는 성경을 번역할 수가 없어서 대륙에서 번역한 후 번역된 성경

을 영국으로 보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다 번역하지 못하고 붙잡혀서 화형을 당하고 만다. 이만큼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위험한 일이었다. 그러나 성경이 번역되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다. 직접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가며 스스로를 세우게 된 것이다. 그러자 우상에 가리웠던 이전의 신앙이 자리할 곳이 없게 됐다. 바로 만인제사장설이 현실로 실증된 것이다.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 중에 하나가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메서인'이라 하여 성경, 즉 책을 파는 이들이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교회는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한글을 가르쳤다. 예배를 드리기 한, 두 시간 전에 교인들을 모아 놓고 글을 가르친 것이다. 그랬더니 배움의 한을 가지고 있던 백성들이 교회로 몰려왔다. 글을 배울 수 있다는 복음이 사람들을 교회로 이끈 것이다.

당시 한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개일 선교사는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선교사의 통찰력으로 아래와 같은 선교 보고서를 남겼다. '한글은 너무나 쉬웠기 때문에 결코 쓰여지지 않고 멸시만 당했다. 여자들조차도 한글을 한 달 쯤이면 배울 수 있으니, 이렇게 쉬운 글자, 이런 보잘것없는 글자가 어디 쓸 데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로 그것은 성경과 기독교 문서들을 기다려 왔다. 4백 년 동안이나 잠에 빠져 거의 쓸모없었던 이 놀라운 정도로 쉬운 언어가 이제 깨어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천한 말' 연문이라고 부르니, 그것은 이것이 중국 상황론자에 견주어 너무나 간단하고 쉽기 때문이다. 하

나님은 틀림없이 인생의 천한 것들을 사랑하시며, 그리고 쓸모없는 것을 들어 이미 있는 것을 없애신다.' 우리나라도 양만들의 횡포로 세종대왕이 만들어 놓은 한글을 사용하지 않았다. 백성들이 글을 배워 공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 놓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모든 문서는 중국의 언어인 한자로 표기하도록 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언어의 한계를 넘지 못해 공부할 할 수 없었고, 그들의 신분을 뛰어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 틀을 깬 것이다. 양만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천민들도 글을 배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다. 개일 선교사의 말처럼 한글은 400년 동안 복음을 기다려왔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들의 언어로 들려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스스로 읽고, 공부하고, 익힐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성도들은 글을 배워 누가 가르쳐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깨닫고 경험하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 믿음과 사상은 항상 세상을 변화시켰다. 교회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왔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자신들의 언어로 벽을 만들고 있다. 과거 한국교회는 비록 소수였을지라도 고립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로 세상을 이끌었고, 선도적 역할을 감당했다. 그것은 먼저 깨달은 자의 의무였고 권리였다. 그러기에 이 땅에 많은 지도자들이 교회를 통해 배출된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한국교회가 감화한다. 선도적 역할이 아니라 시대를 쫓고 있다. 그나마도 시대를 못 쫓아가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남겨질 때 많다. 다시금 프로테스탄트(protestant) 정신을 되찾아야 할 때이다. ☺



**조성민**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교수이며 목회사회학연구소 소장이다. 현재 굿미션네트워크 이사이자 Life Hope 기독교자살예방센터 운영위원장 및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본부장, 월드뷰 편집위원 등으로 섬기고 있다. 독일의 칼데리교(Th.M.)와 마르부르크대학교(Th.D.)에서 수학하였으며, 저서로는 '목회사회학, 현대사회 속의 기독교회',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몰라?',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등이 있다.